

“용기와 희망을”...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단이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체육회)는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기정 회장과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기관단체 회장, 선수,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결단식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기 전달,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수대표 선서는 이승후(배드민턴) 선수가 한다영(태권도) 선수가 나서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이승후 선수는 광주선수단의 최연소(15세) 선수로 현재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약 중이며, 한다영 선수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5 도쿄 데플림픽(청각인 장애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연속 종합 5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선수단은 올해에도 상위권을 목표로 배드민턴 등 총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2019년과 2025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한 양궁 김옥금 선수를 비롯해 골프 황선하, 보치아 강선희, 펜싱 조성환, 역도 박광혁, 양지은 선수

탁구보치아 등 22개 종목 394명 출전... 종합순위 '한 자릿수' 목표

강기정 시장 “갈고닦은 기량 마음껏 펼쳐 꿈 이루길” 선수단 격려



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결단식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우미건설을 비롯한 기업·단체 등 30여 곳이 장애인체육 발전과 출전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회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까지 땀 흘려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선수 개개인의 꿈을 이루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응원한다”며 “여러분의 도전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다. 광주시민 모두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김명수 기자



“전남 학생선수들의 ‘전국체전’ 선전 기원합니다”

전남교육청, 배구·태권도 경기장 찾아 학생선수 도전 응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광역시 현장을 찾아 전남 학생선수들을 격려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오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배구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어 강서체육공원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 중인 태권도 경기를 관람하며 전남 대표 학생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국체육대회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무대”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남의 저력을 보여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경기에 임하는 과정에서 협동과 존중, 그리고 도전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성취”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

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고등부 학생선수 44종목, 72개교, 총 496명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위해 스포츠 심리 지원을 운영해 왔다.

이번 대회 기간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포츠심리 지원을 통한 긴장 완화, 자신감 회복, 경기 불안 해소 등 맞춤형 심리 상담을 진행하여 최상의 경기력 향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전남 학생선수들이 부산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응원한다. 이번 대회가 학생들의 성장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염선호 기자

남도의 맛, LPGA 그린 위에 ‘홀인원’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서 다양한 홍보 활동 펼쳐

수출 농수산물 홍보관 시식행사·판매... 관람객 큰 호응

전라남도가 19일까지 전남 해남 파인비치에서 열리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에서 참가선수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대회 기간 선수 전용 식당에서 참가선수와 가족을 대상으로 나주배와 배즙, 담양 한과, 고흥 유자주스, 신안 김과 해남 전복·고구마를 활용한 전복찜·군고구마 등 전남 대표 식품을 제공해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남 수출 농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해 담양 안복차 한과, 신안천 사김의 'K-전남김', 고흥 예텐식품의 유자주스, 나주배원예협동조합의 배·배즙 등 수출 유망 품목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관람객들에게 전남 농수산식품을 적극 알렸

다. 판매 코너에서는 영양 무화과 제품과 장성 현대푸드시스템의 전남쌀 주먹밥을 선보여 현장을 찾은 갤러리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LPGA 참가 선수들에게 전남도 대표 특산품인 'K-전남김'을 증정했다.

홍보관을 찾은 한 관람객은 “LPGA 참가 한국 선수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전남 농수산식품을 먹고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전남 농수산식품이 K-푸드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세계적인 골프대회를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정 기자



제4회 순천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료

15개 종목 700여 명 참가, 장애를 넘어 하나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7일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순천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15개 종목에 선수, 관계자 7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건강한 땀방울을 나눴다.

개회식에는 노관규 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과 선수, 가족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보치아, 탁구, 슌런, 한궁 5개의 정식종목을 비롯해,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 경기(5종),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경기(5종) 등 다채로운 경기가 펼쳐졌다.

노관규 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함께 남해안 스포츠 허브 도시 순천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힘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